

韩国韩国学中央研究院科研基金项目

进阶韩国语

中级篇

중급 한국어

[中] 何彤梅 主编 [韩] 李玼镐 监修



世界图书出版公司

Reader's Suggestion

韩国韩国学中央研究院科研基金项目

大连外国语学院教材基金项目

进阶韩国语

中级篇

중급 한국어

主 编：何彤梅

副主编：朴善姬 李玉华 林从纲

鱼江石 [韩]

监 修：李珣镐 [韩]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 · 广州 · 上海 · 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进阶韩国语·中级篇/何彤梅主编. —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2006.3

ISBN 7-5062-7993-2

I. 进... II. 何...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09512 号

进阶韩国语·中级篇

主 编: 何彤梅

副 主 编: 朴善姬 李玉华 林从纲 鱼江石[韩]

监 修: 李珣镐[韩]

责任编辑: 韩美玲

装帧设计: 春天工作室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 北京朝内大街 137 号 邮编: 100010 电话: 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北京世图印刷厂

开 本: 787×1092 1/16

印 张: 12.675

字 数: 200 千

版 次: 2006 年 3 月第 1 版 2006 年 3 月第 1 次印刷

ISBN 7-5062-7993-2/H·874

定价: 22.00 元

版权所有 翻印必究

作者简介

➡ **何彤梅**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研究所所长，长期从事韩国语教学和研究工作，出版《中国——朝鲜·韩国关系史》（上下卷）、《实用韩国语会话》等，发表论文多篇。

➡ **李玟镐** [韩] 文学博士，教授，韩国学中央研究院副院长，研究方向为韩国语语法。

➡ **朴善姬**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副教授，从事韩国语教学和研究工作多年，教学经验丰富，出版《韩国语基础语法与练习》等，发表论文多篇。

➡ **李玉华** 大连外国语学院讲师，韩国语教学研究工作经验丰富，发表论文多篇。

➡ **林从纲** 教授，曾任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主要著作有《外贸韩国语》，《全国导游人员资格等级考试复习大纲（朝鲜语卷）》、《全国导游人员资格等级考试系列教材（朝鲜语卷）》、《市民外语会话（韩国语）》、《韩国语词汇学》等，发表论文多篇。

➡ **鱼江石** [韩] 毕业于韩国学中央研究院，获文学博士学位，研究方向为汉诗。

近期推出

- 《进阶韩国语·高级篇》

大连外国语学院 何彤梅 主编

- 《韩语口语表达教程》

洛阳解放军外国语学院 [中] 张光军 [韩] 林亨裁 主编

前言

1992 年中韩建交后,随着两国关系的发展,学习韩语的学生日益增多,我国韩语专业教育也进入了新的历史时期。步入 21 世纪,中韩两国在各个领域的交流更加密切,社会各界对韩语人才的需求不断增加。在这种形势下,韩语教材需求也在不断增加,但适合高年级学生的教材还较少,为了解决广大高年级学生的实际困难,我们在韩国韩国学中央研究院的支持和帮助下编写了这部韩语教材。

本教材共收录了 18 篇文章,这些文章涵盖了语言、文学、文化等方面的内容,包括散文、小说、论文等。文章大多取自韩国知名作家、学者的作品或论文,具有很高的学术价值。为方便学习者使用,本教材还配有词汇表、语法解释、练习等。词汇部分包括词组这一形式,对扩大学生词汇量有很大帮助。语法部分通过语法解释,学生既能巩固低年级所学的语法知识,又可以掌握新的语法内容。练习题的编写紧紧围绕课文进行,注重理解和消化课文的内容、词汇、语法知识。此外,在练习中还穿插了与韩语过级测试有关的题型,满足了高年级学生即将面临过级考试的需求。

我们相信通过学习该教材,学生不但能够学到新的词汇和语法,还能更深刻地了解韩国文化、历史、文学、社会。

本系列教材是为韩语专业高年级学生编写的。社会上具有韩语中级能力的韩语学习者也可利用本书进一步扩大词汇量,系统全面地掌握语法知识,了解韩国文化。

编者

2005 年 8 月

이 책은 2004년도 한국학중앙연구
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지원에
의해 개발되었음.

Reader's Suggestion

读者调查表

1. 您获得本书的渠道:

- ☐ A 新华书店 ☐ B 学校集体购买 ☐ C 普通书店 ☐ D 学校书店 ☐ E 赠阅
☐ F 其他

2. 您学习韩语的时间:

- ☐ A 一年以下 ☐ B 一到两年 ☐ C 两到三年 ☐ D 三到四年 ☐ E 四到八年
☐ F 八年以上

3. 您对本书的整体评价:

- A 全书内容 ☐ 好 ☐ 一般 ☐ 不好 B 部分章节 ☐ 好 ☐ 一般 ☐ 不好
C 装帧设计 ☐ 好 ☐ 一般 ☐ 不好 D 印刷制作 ☐ 好 ☐ 一般 ☐ 不好

4. 您购买本书的主要原因是:

- ☐ A 内容有吸引力 ☐ B 信赖作者 ☐ C 课文难度适中 ☐ D 装帧设计美观 ☐ E 其他

5. 您的阅读情况:

- ☐ A 全部 ☐ B 大部分 ☐ C 少部分 ☐ D 几篇

6. 您在韩语学习中的难点是: _____

7. 您学习韩语过程中迫切需要的书籍是: _____

8. 您对目前市面韩语学习类书籍做何评价: _____

9. 您最喜欢的一本韩语学习类书籍是: _____

10. 您对本书有何意见建议: _____

您的个人资料:

姓名 _____ 性别 _____ 年龄 _____ 民族 _____ 学校或单位 _____
职称 _____ 联系电话 _____ 传真 _____ Email _____
通讯地址 _____ 邮编 _____

您有任何意见建议, 随时欢迎您发邮件到 hml@pku.org.cn。

请将以上问卷: 传真至010-64077944, 或邮寄至北京市朝内大街137号,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编辑部韩语收。邮编100010。您将定期获得书目, 并有机会获得赠书。

世界图书出版公司



차례

제 1 과	새말의 탄생	1
제 2 과	한국인과 호랑이	11
제 3 과	시와 이야기가 있는 한국역사(1)	20
제 4 과	까치	33
제 5 과	수필의 세계	43
제 6 과	언어의 본질	54
제 7 과	아득한 서울	64
제 8 과	하늘이 무너지면	77
제 9 과	만남	89
제 10 과	언어와 문화의 접촉	97
제 11 과	정보사회와 인간생활	110
제 12 과	시의 언어	121
제 13 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33
제 14 과	아리랑	148
제 15 과	은근과 끈기	156
제 16 과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164
제 17 과	우리말 가꾸기	174
제 18 과	해인사에서	184

제 1 과

새말의 탄생

남기십

1

말은 끊임없이 변한다. 개별적인 말의 소리가 변하고 그 변화가 쌓여서 음운 체계가 변하며, 문법적 요소와 문법 체계도 변한다. 특히, 낱말은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다. 음운 체계의 변화나 문법의 변화는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리지만 어휘의 변화는 그 양도 많으며,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특히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문물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와 같은 시대나,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 구조의 변동이 전에 없이 심한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같은 곳에서는 어휘 변동의 폭이 엄청나게 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새로운 생각, 세분화되는 지식, 새로 생겨나는 사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표현해야 할 새말이 그만큼 많이 요구되는 한편, 사라져 가는 문물 제도와 함께 사라져 가야 할 운명에 놓이는 말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어휘가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도 뒤따르게 된다. 새로운 개념, 제도, 사물이 외부에서 수입될 때에는 흔히 그와 함께 말까지도 수입되는데, 이렇게 수입된 외국어가 외래어로, 그리고 다시 우리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의사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한다. 그 수입의 대상이 되는 언어가 여러 갈래일 경우에는 외래어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그만큼 혼란이 커지고, 따라서 의사 소통의 장애도 커지게 된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새말을 만들어 내기도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그러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전문 용어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말을 만들어 내거나, 우리말을 순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새말을 만들어 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 만들어진 말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2

우선 새말이란 무엇인가, 새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새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새말이 생겨나는 원인은 전에 없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필요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일지라도 그것을 표현하던 말들의 표현력이 감소했을 때, 그것을 보강하거나 신선한 새 맛을 가진 말로 바꾸기 위한 대중적 욕구에 의해서도 새말이 생겨난다. 광복 후 우리나라에서는 국어를 정화 혹은 순화하기 위해 많은 새말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새말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뿌리로 된 것과 이미 있던 말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 있다. 또한 새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외국어로부터의 차용어가 있다. 완전히 새로운 뿌리가 창조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다. 있다고 해도 의성어나 의태어 계통인 것이 많다. 6·25 때 처음으로 미군 제트전투기가 등장했다. 이 제트기는 당시에 어느 비행기보다도 빨랐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쌩쌩’소리를 내며 사라져 갔다. 그때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쌩쌩이’라고 했다. 예전에 노를 젓던 나룻배나 돛단배가 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배로 바뀌고 규모도 커졌다. 이 배가 움직일 때 내는 소리를 본따서 ‘뚝딱이’, 혹은 ‘뚝딱선’ 혹은 ‘통통배’ 라는 말이 생겨났다. ‘각두기’도 무를 썰는 소리를 따서 만들어진 말일 것이다. ‘쌩쌩이’, ‘뚝딱이’, ‘각두기’의 ‘-이’는 예전부터 있던 접미사지만 ‘쌩쌩’, ‘뚝딱’, ‘통통’, ‘각둑’은 의성어로서 새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있던 말들을 가지고 합성하거나 파생시켜 새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서 새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어느 언어에서나 공통된 현상이다. ‘불고기, 꼬치 안주, 가락국수, 한글, 낱말, 홀소리, 당소리……’ 등이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새말들이다.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통조림’은 파생법에 의한 ‘조림’과 ‘통’의 합성, ‘맞춤법’은 파생법에 의한 ‘맞춤’과 ‘법’의 합성, ‘손톱깎이’는 합성법에 의한 ‘손톱깎-’에 접사 ‘-이’가 붙어서 파생된 새말들이다.

국어에서 한자말로 된 새말은 사실상 모두 이 범주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자말은 음절 하나 하나가 각각 독립된 형태소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한자말을 모아서 만든 새말은 그것이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든지, 비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든지 모두 합성법에 의한 것이다. ‘흑백(黑白), 남북(南北), 수지(收支)’ 같은 말들은 두 뜻이 대등하게 합성된 말이니 더 말할 것 없고, 우주선의 달 착륙 후에 생긴 ‘월석(月石), 월인(月人), 월진(月塵)’ 같이 한 뜻이 다른 뜻에 종속적으로 결합된 말들은 물론, ‘선생(先生), 사건(事件), 동생(同生)’ 같이 이미 그 말들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 하나 하나의 뜻을 가려낼 수 없을 만큼 단일한 뜻을 나타내는 말들도 그 형성 과정은 합성법에 의한 것이다.

외국어로부터 들어온 말도 새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는 ‘붓, 먹, 말(馬), 보라매, 구두, 남포, 담배, 고추, 고무, 부처’ 등과 같이 완전히 우리말처럼 되어 외래어

라는 의식조차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구역질(口逆-), 비위(脾胃), 반찬(飯饌), 자반(佐飯)’ 등과 같이 거의 그 어원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말이 된 것도 있다. ‘데모, 원피스, 아나운서, 렌즈, 펜, 넥타이, 우동, 금, 은, 귀신, 약, 종(鍾)’ 등과 같이 서구어 계통, 일본어 계통, 한자어 등에서 왔다는 것이 의식은 되고 있으나 우리말 어휘 목록에 그 지위를 굳힌 말들, 그리고 ‘바캉스, 트러블(말썽), 트릭(속임수), 넘버(번호), 리더(지도자), 테스트(시험), 아르바이트(일, 일자리), 라이벌(적수, 맞수), 코스트(원가), 볼륨(부피), 잼(틈)’ 등과 같이 외국어라는 의식이 분명하여 그 지위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새말은 민중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과,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보급되는 것이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과, 언어 표현이 진부해졌을 때 그것을 신선한 맛을 가진 새 표현으로 바꾸려는 대중적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모두 재료로 쓰인다.

정책적인 계획 조어의 경우는 대개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사용되며, 한자말일지라도 아주 익어서 고유어처럼 된 것들이 재료로 쓰인다.

‘한글, 단팔죽, 꼬치안주, 가락국수, 덮밥, 책꽂이, 건넌목’ 등은 계획 조어로서 생명을 얻은 것들이며, ‘덧셈, 뺄셈, 모눈종이, 반지름, 지름, 맞선꿀’ 등의 용어들은 학교 교육에 도입되면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불고기, 구두담이, 신문팔이, 아빠, 끈끈이, 맞춤, 병따개, 비웃, 나사돌리개, 사자, 팔자, 코트깃, 싸인북, 오버센스’ 등과 같이 누가 먼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은 말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새로 나타난 말들은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서 기성 어휘로서의 지위를 굳히는 것과,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는 것,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잠시 쓰이다가 버림을 받게 되는 말들은 대개 어느 한 사회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받았을 뿐 널리 일반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들이다.

3

국어에 한자가 도입된 이후, 한자말이 고유한 우리말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새말을 만드는 데도 주로 한자가 사용되면서 고유어에 의한 조어법은 점점 쇠퇴하여 버렸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가옥(家屋), 길-도로(道路)……’와 같은 유의어(類義語)가 무수히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계집-여자(女子), 늙은이-노인(老人)……’ 등에서와 같이 고유어에 비하의 의미가 담기는 사례도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뿔비탈, 피아리, 뿔꿀, 뿔꽃, 뿔기슭, 뿔봉우리, 뿔마루, 뿔부리, 뿔불, 뿔언덕, 노관피……’ 등과 같이 대단히 생산적이던 고유어의 조어법도 ‘산정(山頂), 산록(山

麓), 산간(山間), 산사(山寺), 산신(山神), 산화(山火), 산(山)돼지, 고산(高山), 명산(名山)……’ 등에서 보듯이 한자에 밀려났다. 그 결과 사전에 올려진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말이 되고 말았다.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말의 도입이 극심하였으며, 심지어는 서양말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조어진 ‘에그 프라이, 오페라 밴드, 오픈 샷츠, 위스키 티, 싸인북……’ 등과 같은 원래의 영어에도 없는 말들까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 일본말은 이제 많이 추방되었다. 해방 후부터 지속적으로 펼친 일본말 몰아 내기와 우리말 되찾기 운동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일본말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때 만들어진 말들이 ‘도시락, 가락국수, 덮밥, 꼬치안주……’ 등이다.

그 동안 정부와 국어 운동 단체들이 펼쳐 온 국어 순화 운동의 결과로 일본말이나 한자말 대신에 만들어진 고유어가 새말로서 자리를 굳힌 것이 많다. 그 결과 순우리말을 가지고 새말을 만들자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서양 외래어에 대해서 아직 큰 반성이 일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외래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외래어의 수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저자소개

남기심(南基心, 1936~):

경기도 광주 출생,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내다 현재 정년퇴임하였다. 한글학회 이사, 한국언어학회 부회장, 국어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립국어연구원장으로 있다.

주요 논저로는 『국어 시제 연구 - 15세기 국어의 ‘-더-’와 그 대립형 중심』(1961), 『국어 완형 보문법 연구』(1974),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1978), 『표준 국어 문법론』(공저, 1985), 『국어 조사의 용법』(1993) 등이 있다.

어휘와 구

문물제도(명) 文物制度

자반(명) 咸鱼

세분화(명) 细化

데모(명) 集会, 示威, 游行

뒤따르다(동) 跟着, 跟随

원피스(명) 连衣裙

정착되다(동) 定居, 固定

아나운서(명) 播音员

갈래(명) 分支, 类别

렌즈(명) 镜头, 透镜

순화하다(동) 净化, 纯化

우동(명) 日式面条, 乌冬面

뭉들다(동) 合起来, 加起来

목록(명) 目录

차용되다(동) 被借用

비캉스(명) 假期

보강하다 (동) 增强, 加强
 트러블 (명) 麻烦, 是非
 차용어 (명) 外来语, 借用语
 트릭 (명) 诡计
 제트기 (명) 喷气式飞机
 넘버 (명) 号码
 노 (명) 橹, 桨
 리더 (명) 领导者
 돛단배 (명) 帆船
 테스트 (명) 测验
 모터 (명) 马达, 发动机
 라이벌 (명) 对手, 敌手
 본뜨다 (동) 模仿
 코스트 (명) 原价, 成本
 꼬치 (명) 串儿
 볼륨 (명) 体积
 가락국수 (명) 粗条冷面, 切面
 갭 (명) 差异, 缝隙
 당소리 (명) 辅音
 언급하다 (동) 提及, 提到
 통조림 (명) 罐头
 진부하다 (형) 陈腐的
 조림 (명) 酱肉
 단팥죽 (명) 甜小豆粥
 손톱깎이 (명) 指甲刀
 건널목 (명) 路口, 岔道口

통사적구성 (명) 统辞性结构
 계획 (명) 计划
 우주선 (명) 宇宙飞船
 덧셈 (명) 加法
 종속적이다 (형) 从属的, 附属的
 뺄셈 (명) 减法
 먹 (명) 墨
 모눈종이 (명) 方格纸
 보라매 (명) 驯养的当年生小鹰
 맞선꼴 (명) 对称图形
 남포 (명) 炸药, 煤油灯
 끈끈이 (명) 粘胶
 고무 (명) 橡胶
 나사 돌리개 (명) 螺丝刀
 부처 (명) 佛, 佛像
 싸인북 (명) 签名簿
 구역질 (명) 恶心, 作呕
 오버센스 (명) 过于敏感, 过于灵敏
 치하 (명) 统治下, 辖区内
 극심하다 (형) 极为严重
 오페라밴드 (명) 歌剧乐队
 오픈샤쓰 (명) 开衫
 펼치다 (동) 打开, 展开
 추방되다 (동) 被流放, 被驱逐
 몰아내다 (동) 赶出去
 고무적이다 (형) 鼓舞人心的

보충자료

* 신어의 조어법

현대한국어는 어휘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어가 대량으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 신어는 새로운 형태를 가리키는데, 이 경우 전혀 새로운 형태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기존 형태에 근거하여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신어의 조어법은 전통적인 합성 및 파생의 조어 방식 이외에 혼성, 축약, 대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1. 합성법: 어기(어간·어근)들의 결합

(1) 일반적 방식

- ① 고유어 + 고유어: 걸개그림
- ② 고유어 + 한자어: 갈비촌
- ③ 고유어 + 외래어: 배꼽티
- ④ 한자어 + 한자어: 출구조사
- ⑤ 한자어 + 외래어: 실명드라마

(2) 특이한 방식

- ① 용언의 청유형 + 어기: 먹자골목, 사자주문
- ② 용언의 어간 + 어기: 올리효도, 내리사랑
- ③ 부사어 + 어기: 홀로노인

2. 파생법: 어기에 접사가 결합

(1) 접두 파생어

- 헛- : 헛소동, 헛스윙
- 왕- : 왕내숭, 왕청취자

(2) 접미 파생어

- 기: 뒤집기, 터파기
- 이: 글자살이, 눈높이
- 미: 도우미, 알리미

3. 혼성법: 둘 이상의 단어에 대하여 그 일부 요소를 결합함.

(1) 동위적 혼성

- ① 고유어 + 고유어: 무추 (무우 + 배추)
- ② 외래어 + 고유어: 포카락 (포크 + 숟가락)
- ③ 한자어 + 한자어: 구마 (대구 + 마산 고속도로)
- ④ 한자어 + 외래어: 휴게텔 (휴게실 + 호텔)
- ⑤ 외래어 + 외래어: 아나듀서 (아나운서 + 프로듀서)

(2) 연어적 혼성

- ① 고유어 + 고유어: 나우지기 (나우누리의 문지기)
- ② 고유어 + 외래어: 보라넷 (보라매처럼 빠른 인터넷)
- ③ 한자어 + 한자어: 한은 (한국은행)
- ④ 외래어 + 한자어: 컴시인 (컴퓨터의 원시인)
- ⑤ 외래어 + 외래어: 컴팅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미팅)

4. 축약법: 합성어나 구에서 주요 어기를 취함.

(1) 합성어의 축약

명퇴(명예퇴직), 종생부(종합생활기록부)

(2) 구의 축약

모람(모인 사람), 알로생(알찬 노후를 생각하는 모임), 아나바다(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자)

5. 대치법: 기존 단어의 일부를 다른 요소로 바꿈.

(1) “아베크족”형: 오렌지족, 반디족, 폭주족

(2) “노래방”형: 대화방, 머리방, 토굴방, 멀티방

(3) “가격파괴”형: 서열파괴, 음악파괴, 직종파괴

(4) “가상공간”형: 가상대학, 가상스타

(5) “팔찌”형: 귀찌, 목찌, 발찌

연습

1. 본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새말이란 무엇인가?

(2) 오늘의 사회에서 새말이 왜 많이 증가하는가?

(3) 새말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4) 국어순화운동의 결과는 어떠한가?

2.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 안에 넣으라.

(1) 보기: 공통된, 파생시켜, 생산적인, 합성

이미 있던 말들을 가지고 ()하거나 () 새말을 만드는 것이 가장 () 방법으로서 새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어느 언어에서나 () 현상이다. ‘불고기, 꼬치안주, 가락국수……’ 등이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새말들이다.

(2) 보기: 과언이, 합성법, 독립된, 비통사적, 된, 모아서

국어에서 한자말로 () 새말은 사실상 모두 이 범주에 든다고 해도 () 아니다. 한자말은 음절 하나 하나가 각각 () 형태소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한자말을 () 만든 새말은 그것이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든지 () 구성에 의한 것이든지 모두 ()에 의한 것이다.

보기: 들도, 내기도, 기, 까지도, 로부터, 부터,려면, 로, 자는

- 보기: 기는, 기란, 기 그지없다, 기만, 기 한이 없다, 기에, 기로, 기 일쑤이다,
기 전에, 기 마련이다

- (6) 한 마디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서운하()도.
- (7) 많은 세월을 혼자 살자니 외롭().
- (8)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먹().
- (9) 공치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창문을 깨().
- (10) 말하() 몇 번이나 생각을 해요.